전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박차

국비 포함 106억원 투입…조선업 등 1천435명 고용 지원
재직자 희망공제·고용 도약 프로젝트·인력양성사업 추진

전남도가 조선업·농촌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취업 연계, 기업 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 사업이다.

전남도는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해제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인력수급 문제 및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조선업 고용 도약 프로젝트,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에 총 106억원(국비 67억6천만원, 도비 23억6천만원, 시·군비 15억4천만원)을 투입해 1천435명의 고용 창출과 2만3천405건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은 원청사-협력사 간 임금, 근무 여건 격차 등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자체, 원청사, 근로자, 4자가 2년간 200만원을 적립해 만기에 협력사 근로자에게 8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3천400명 지원을 목표로 올해 35억원(국비 17억5천만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0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 숙련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탈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 고용 도약 프로젝트는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업 희망공제(신규 취업자 대상)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확대해 서부권에서는 해남·진도를 중심으로, 동부권에서는 보성을 중심으로 농번기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도시 구직인력과 구인농가 간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또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훈련 수요-공급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및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사업별로 지침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3월 말부터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주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과 산업에 맞는 지역 주도의 산업별 일자리 지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된 사업을 수행기관과 함께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金지사, '전남형 청년마을'서 창의·열정·도전 강조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 방문
사업 청취 등 청년들과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오후 영광 전남형 청년마을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 청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인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듣고 청년 마을을 운영하는 청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의·열정·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공동체를 구상하고 만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이 주축이 돼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역탐방·문화활동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15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5곳을 추가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은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체험 프로그램인 안터지기 참여자 중 13명이 영광에 정착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착자 중 청년은 3명이다.

또한 엉겅퀴·구절초 재배, 앙금떡·인절미 등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제품 개발 및 판매,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청년치유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장도 만들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유별난 안터마을의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주변 시설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시식한 뒤 청년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 뜨거운 열정, 끊임없는 도전으로 청년 마을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전통시장 4곳,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연장

광주시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

광주시는 오는 6월까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송정매일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각각 5-7일간 환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 기간을 12-14일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송정매일시장은 29일까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무등시장은 4월6-19일(10일은 국회의원 선거로 미운영), 말바우시장과 송정매일시장은 5월3-14일, 말바우시장과 무등시장은 6월1-12일까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선강 기자

"'봄꽃 지도' 보며 도심 속 나들이 떠나요"

광주시, 명소·문화예술 관광지 지도 제작

광주시는 27일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지역 곳곳에 핀 봄꽃 명소와 문화·예술 관광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봄꽃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봄꽃 지도'는 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과 여행객들이 3-5월 지역 봄꽃 명소를 둘러보고 주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도에는 개화 시기별로 ▲개나리(광주천) ▲벚꽃(양산호수공원·쌍암공원) ▲유채꽃(산동교친수공원) ▲장미(조선대학교·풍암호수공원) ▲이팝나무(광주시청) 등 15곳의 봄꽃 명소를 소개했다.

또 인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과 민간 운영 전시관 등의 위치 정보를 담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은 봄을 맞아 각종 전시이벤트를 열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 미술관 등도 특색있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또 5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꽃과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봄꽃 지도는 광주문화관광 홈페이지(오매광주)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각종 전시 행사 내용은 홈페이지 행사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

50실 이상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市,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광주시는 27일 "29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 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 앱, 키오스크 등에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 선택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1회용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1회용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강 기자